

베냐민 왕은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권유하는가?

어린아이를 지켜보다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? 어린이들은 보통 꾸밈없이 말하며, 사랑을 표현하고, 단순한 말로 신앙을 나타낸다. 구주는 이렇게 가르치셨다.

“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.”(마태복음 18: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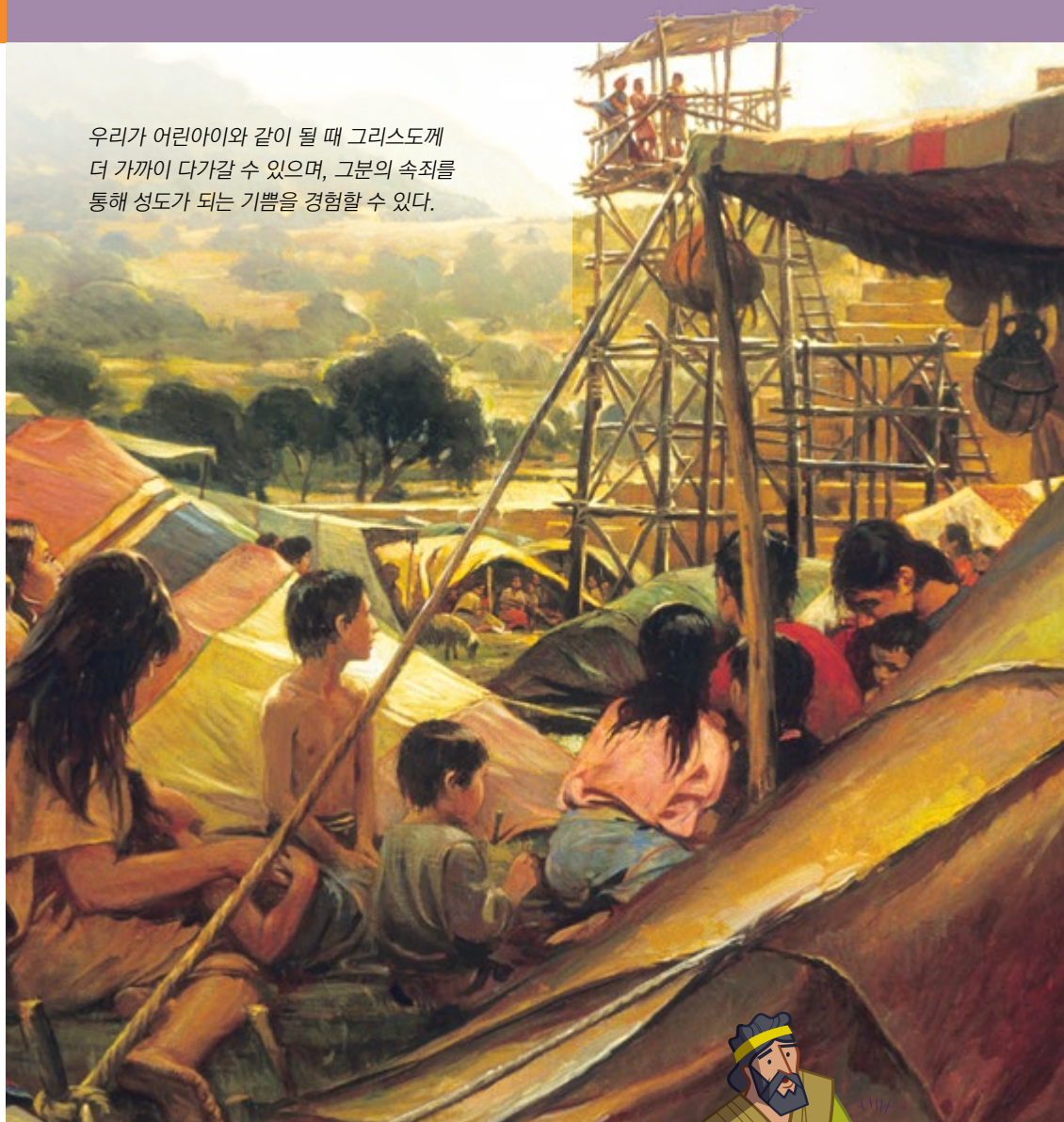
이 가르침은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권유한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다.(모사이야서 3:19 참조)

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가?

모사이야서 3장 19절을 참조하여, 베냐민 왕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 본다.

1. _____
2. _____
3. _____
4. _____
5. _____
6. _____

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, 그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.



셋째 주



토론

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물몬경의 영웅들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찾아본다.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?